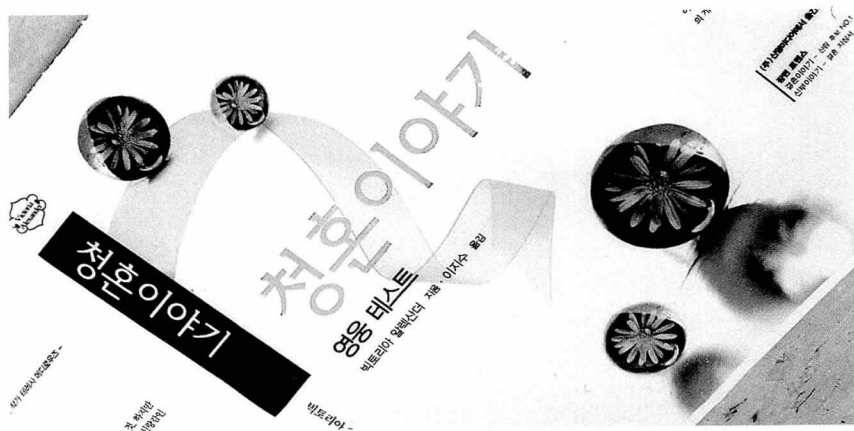


약간의 효과로 고급스럽고



일반 오프셋인쇄에 약간의 효과를 더 하면 부가가치가 높아진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기법 중의 하나로 금박인쇄가 있다.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금색이나 은색으로 인쇄된 제품들은 고급스러움과 화려함을 나타내 줌으로써 보는 이로 하여금 좋은 인상을 주게 된다. 특히 패키지 분야에서는 내용물을 접하기 전에 패키지를 먼저 선택하는 경향이 있는데 금박인쇄제품은 소비자의 눈을 먼저 끌어들이는 효과가 있어 패키지나 라벨에 많이 이용되고 있다.

또한 초대장이나 연하장, 카드 같은 경우에도 고급스러움이 한껏 드러나게 돼 받는 이들로부터 좋은 인상을 갖게 된다.

금박은 금, 은 및 착색박을 얇게 퍼서 철판이나 알루미늄판으로 압과 열을 가하여 인쇄하는 것이다. 최근에는 각종 컬러 박이 나와 디자이너의 의도에 맞는 색을 선택할 수 있으며, 또한 먹박도 나와 있어 검은색의 광택효과도 낼 수 있다.

이 밖에도 무지개박, 홀로그램박을 이용하는 특수박들도 선을 보여 다양한 효과를 낼 수가 있다.

열과 압력으로 인쇄되는 금박인쇄는 각종 종이류, 플라스틱 필름류 및 시트류, 옷감 등에도 이용할 수 있으며, 용도에 따라 금박 원단은 별도로 제작된다.

금박인쇄공정은 우선 상품화된 금박 롤(스탬핑호일)을 구입하고, 디자인된 글씨



◆ 두원금박인쇄에서 제작한 금박인쇄물들

